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매일 얼마나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나는 어떤 자리와 역할로 보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섬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삶

‘뜻대를 향하여’는 올해 삼일교회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이라는 뜻대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뜻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들 하나 하나는 모두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초점 있는 삶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종살이와 누명, 옥살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성찰했습니다. 성찰이란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깨달음을 얻는 영적 훈련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감옥에서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형들과 극적으로 상봉했을 때도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타를 삼을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보냄 받은 자리를 성실로 채우는 삶

우리는 요셉이 대제국의 총리에 올랐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 있는 삶이란 순간순간의 성실함이 쌓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뚝 선 사람만 주목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를 보십니다. 인생은 건너뛰기가 아닙니다. 어제의 성실함 없이 내일의 성숙함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종종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주어진다면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놓인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정과 일터의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맡겨진 일에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초점 있는 삶이란 매 순간 성실하게 사는 것의 집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초점 있는 삶으로 이끕니다. 보냄 받은 자리에서 성실할 때 가능해 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라는 뜻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로 주어진 하루를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뜻대로 향하게 합니다.